

SDGs 농업·환경 연관 목표 이행방안*

강 상 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유엔 지속가능발전의제 2030

1.1. 지속가능발전 논의 개관

2016년은 21세기 인류 문명이 당면한 두 개의 세계적 도전 요인에 관한 지구적 대응이 시작되는 전환점에 해당한다. 먼저 국제 사회는 지난 2015년 9월 유엔총회 기간 중 2016~2030년을 이행 기간으로 회원국 모두가 달성해야 할 17개의 지속가능발전(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한 바 있으며, 이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당사국회의를 통해 기존 기후변화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여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문제를 다룰 파리협정을 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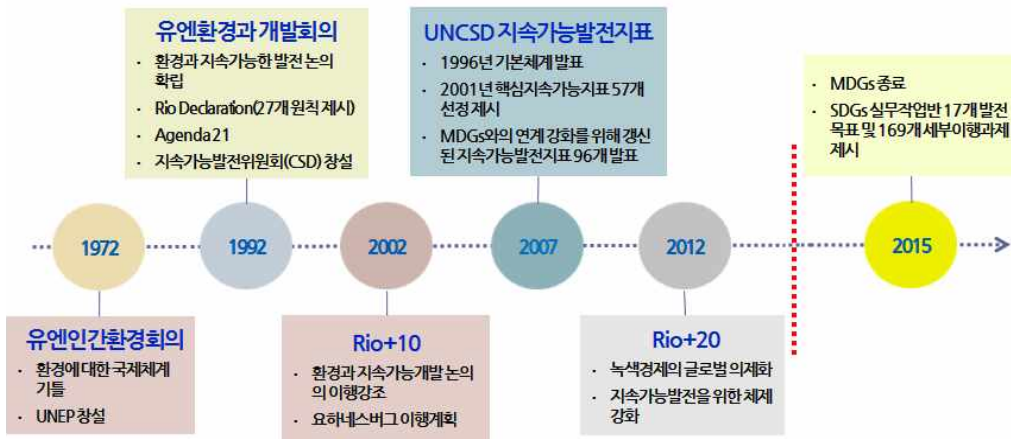
20세기 인류 문명은 산업혁명에 힘입은 제조업의 국제적 확산과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힘입어 이전 시기에 찾아볼 수 없었던 고도의 경제성장 추세를 시현하였으나, 진정한 의미에서 인류 문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사회경제 발전 및 환경 보호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 이러한 평가는 19세기 중엽 이후

* (sikang@kei.re.kr). 본고는 KEI 2015년 연구보고서 “Post-2015 SDGs 대응 녹색경제 이행전략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본격적으로 확산된 산업혁명에 힘입은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결과로 지구촌의 절대 빈곤 해결에는 큰 진전이 있었으나, 과거의 성장 지향적 개발전략의 단순한 연장으로는 경제와 사회의 발전이 환경보존과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성찰을 담은 1987년 유엔 브룬틀란트 보고서에 기초한 것이다.

브룬틀란트 보고서 발간 이후, 유엔은 1992년 유엔 환경과 개발회의를 통해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27개 원칙을 담은 리우선언을 채택하고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를 창설하였으며, 이후 20년에 걸쳐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유엔 지속가능발전지표 등을 중심으로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2001~2015)를 채택하여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축으로 한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 발전을 견인해 왔다.

그림 1 유엔 지속가능발전 논의 경과



자료: KEI, Post-2015 SDGs 대응 녹색경제 이행전략 연구(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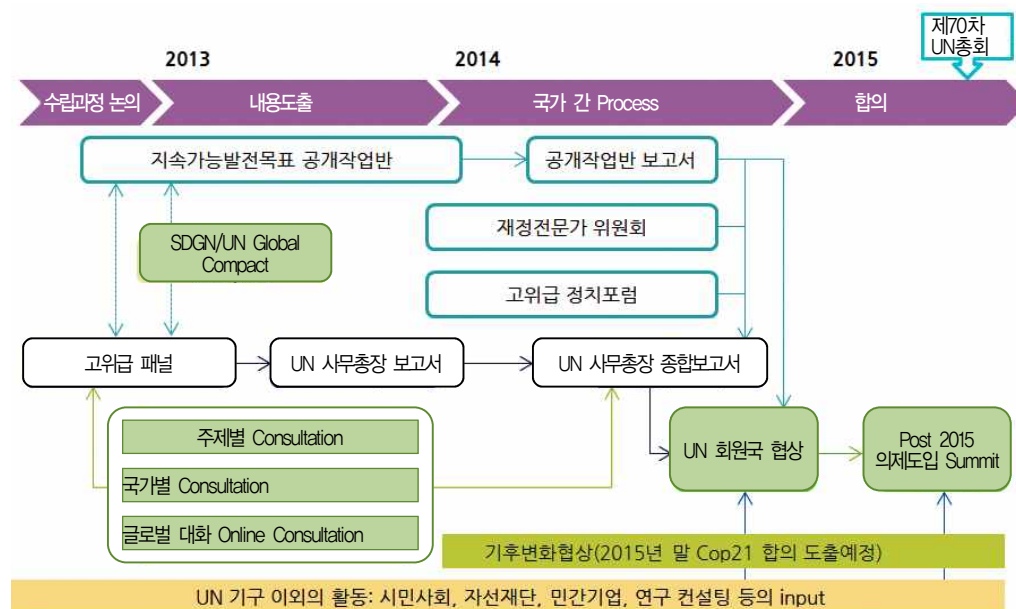
이러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여전히 지난 2008년 세계 경제를 뒤흔든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보는 바와 같은 세계화된 현대 사회경제 시스템의 불안정성, 지구환경 파괴를 수반하는 개발도상 지역의 대규모 개발 방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같은 새로운 도전 요인에 직면해 왔으며, 이러한 도전 요인들은

1) '지속가능발전 의제 2030(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은 제70차 유엔 총회기간 열린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비전과 원칙 및 공약 사항을 담은 의제문서 "Transforming Our World"의 부제임.

종종 자원 고갈(depletion), 환경 악화(degradation) 사회적 불평등(deprivation)을 나타내는 '트리플 D'의 위기로 불리기도 한다.

1992년의 리우환경정상회의 개최 20주년을 기념하여 2012년 브라질 리우에서 다시 개최된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에서는 유엔 내 지속가능발전 논의를 주관해 온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를 대체하여 유엔총회 산하에 회원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고위급정치포럼(HLPF)을 설치하여 그간의 지속가능발전 논의에 새로운 정치적 동인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2016년에서 2030년을 이행 기간으로 하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2015년 말까지 도출할 것에 합의함으로써 국제 사회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림 2 유엔 Post-2015 개발의제 논의구조



자료: (<http://www.unfoundation.org/assets/pdf/post-2015-process-slide-1114.pdf>)(2015).

이후 2015년 9월 제70차 유엔 총회까지 진행된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유엔 내 논의는 2015년으로 종료 예정이던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후속 개발의제 설정을 위한 고위급패널(High Level Panel)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위한 공개 작업반(Open Working Group) 및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같은 유엔 사무국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아울러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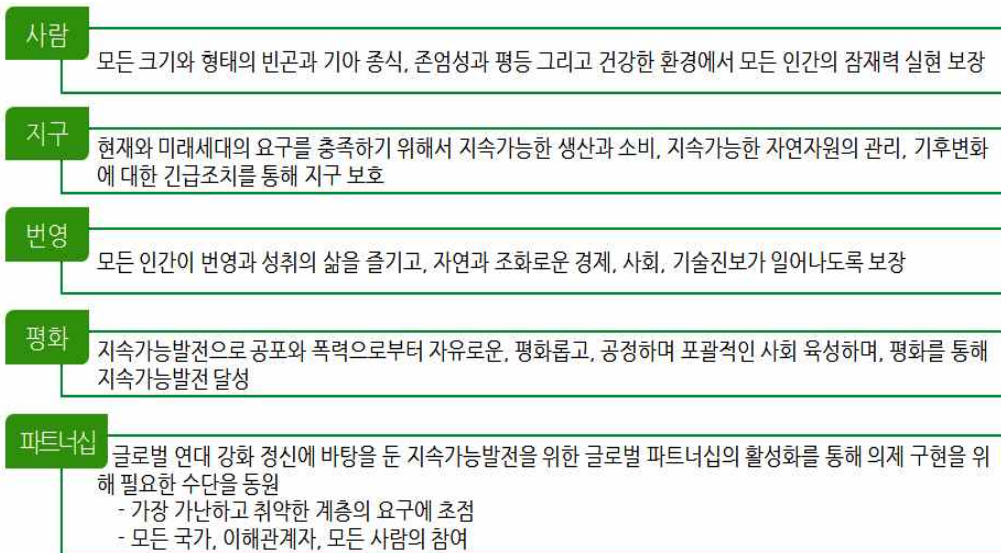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UN ESCAP) 등 유엔 지역기구 차원의 논의가 병행되는 다층 구조로 추진되었으며, 그 외연에는 OECD,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 유럽연합과 같은 정부 간 기구 및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들에 의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다.

1.2.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구성

회원국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되어 Rio+20 회의 이후 진행된 Post-2015 개발 의제 논의를 담당한 공개 작업반은 2015년 8월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새천년개발목표의 후속 목표설정을 위한 기존 논의성과를 포괄하는 총 17개 목표와 관련 169개 세부이행목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최종협상 초안을 도출하였다. 최종협상결과를 반영한 합의문서는 이어 2015년 9월 제70차 유엔총회 기간 중인 9월 25일에서 9월 27일까지 개최된 회원국 정상회의를 통해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로 채택되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 의제 2030의 핵심에 해당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과거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로 야기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자연환경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그림 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5대 행동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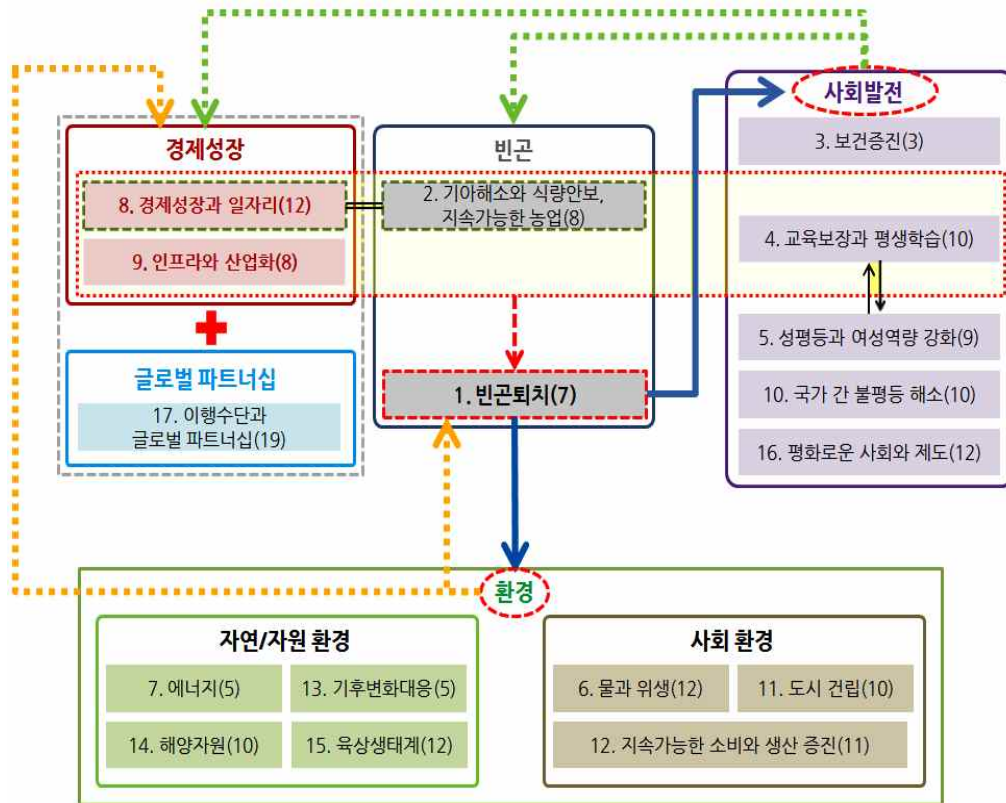


자료: UN,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2015), p2.

위한 경제, 사회, 환경, 이행 기술 및 재정 분야에서 다양하고 실천 가능한 목표들을 중심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을 포함하는 모든 나라와 이해당사자들이 협력적으로 이행해 나가야하는 보편적인 의제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앞선 새천년개발목표와 차별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2030년까지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이 필요한 5대 행동영역으로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을 제시하고 있으며, 빈곤해소를 가장 큰 지구적 도전과제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결 요건으로 강조하고, 그간의 지속가능발전 논의의 중심에서 비껴나 있던 인권의 실현과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의 역량 강화와 같은 보다 궁극적인 사회경제 발전 목표와 취약 계층에 대한 균형 있는 배려를 통합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림 4 17개 SDGs의 연계 구조



자료: UN/DESA "Towards integration at last?_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s a network of targets(2015).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가적 실천을 위해서는 17개 목표 및 169개 세부이행목표 간의 연계성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17개 목표 각각이 다양한 지속가능발전 주제들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우선순위를 반영한 협상의 결과물이란 점에서 피할 수 없는 절차로 여겨졌다. 이를 위하여 유엔 경제사회국은 그간 지속가능발전 논의의 기준이 되어 온 경제, 사회, 환경의 3개의 축과 새로이 제시된 지속가능발전의 5개 실천 영역을 기준으로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간 연관 관계를 정리한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분석에 따르면 17개 유엔지속가능발전 목표는 지속가능발전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인 빈곤퇴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목표1과 목표2를 중심으로 경제성장과 관련된 목표군(목표 8, 9), 사회발전과 관련된 목표군(목표 3, 4, 5, 10, 16), 자연/자원 환경 및 정주환경을 포함하는 환경보존과 관련된 목표군(목표 7, 13, 14, 15; 6, 11, 12) 및 이들 16개 목표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수단과 국제협력에 관한 목표 17로 나누어진다.

유엔 사무국은 또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이행목표를 서술하는데 나타난 용어의 의미적 공통성과 그 빈도를 기준으로 목표간 상호 연관성의 강도를 평가하였는데, 분석된 세부이행목표 가운데 60개가 원래 속해 있던 상위 목표 이외의 다른 상위목표와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19개의 세부이행목표는 세 개 이상의 다른 상위목표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가수준의 지속가능발전이행 과정에서 각 의제를 담당하게 될 정부부처 및 이해관계자들이 목표 상호 간의 시너지 혹은 상충관계에 대한 보다 세심한 주의와 체계적인 이행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1.3.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 의의와 안계

지난해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이전의 글로벌 의제들에 비해 보다 균형 있는 발전 비전을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목표 16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포용적이고 평화로운 사회의 촉진, 법적 보호(justice)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제공 및 모든 수준에서 책임 있고 효율적이며 포용성 있는 제도 구축과 같은 사회적 목표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경제적 혹은 환경적 측면을 강조한 이전 의제들에 비해 진일보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또 다른 차별성은 목표 설정을 위한 공동 작업반에 참여한 회원국 대표와 전문가,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한 16개 주제별 목표들(goals) 각각에 세부목표(target)와 함께 그 세부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또는 정책방향과 같은 방법론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16개 주제별 목표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정, 기술, 역량강화, 국제무역, 기타 이행체계와 관련된 세부목표들을 목표 17의 '이행수단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라는 독립된 목표로 제시하였다는 것은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가 단순한 목표 제시를 넘어 그 이행을 강조한 것이란 점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특징은 향후 이행과 관련하여 각 회원국이 처한 사회경제 및 환경적 이행여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국가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 경로를 계획하고, 적절한 시차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개발과 이행성과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의 환류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 17은 이와 같은 개별 국가 수준의 이행계획이 보다 확장된 지역 또는 지구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과정과 유기적 연계 속에서 이행되는 과정에서 각국에 주어질 공여국, 수원국, 시민사회단체, 민간경제부문 등 다양한 주체로서의 역할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처럼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달성 목표뿐만 아니라 이행 수단을 명시하고, 또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참여와 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개발도상국에 한정된 발전 목표를 제시하였던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비해 진일보 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이행과 선진국의 참여라는 수원국 대 공여국의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금번 채택된 17개 목표(goals)와 169개 세부목표 가운데 어느 것도 최근의 선진국 사회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측면의 도전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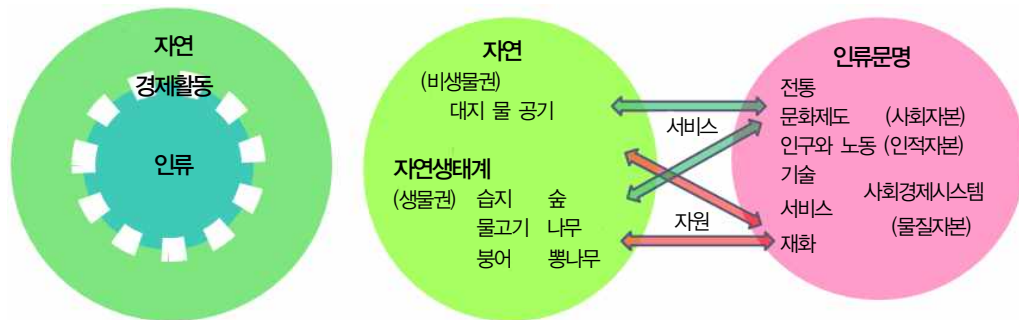
특히 198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제성장의 둔화, 경상수지의 악화, 정부부채의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여건 악화는 단순히 선진국경제권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된 세계 시장경제 구조에서 금융 및 실물 부문의 주기적 불안정성을 초래함으로써 활발한 성장세를 보이는 개발도상국 경제권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세계 경제사회가 직면한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의 장애 요인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

2. 농업·환경부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이행지표

2.1. 지속가능발전과 농업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살펴 본 자연환경과 인간의 경제활동 및 사회구조의 상호 관계에서 인간의 경제 활동은 자연이 제공하는 자원과 환경을 이용하여 인류 문명의 번영에 필요한 물질 토대를 구축해 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파악되며, 자원의 채취, 가공,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분배와 같은 주요 경제 활동은 역사적으로 이들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자연 환경과 사회 구조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

그림 5 지속가능발전과 인간과 자연 환경



자료: 저자 작성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인간과 자연 환경의 관계는 인간이 자연 환경이 제공하는 자원과 서비스를 토대로 자신의 생존을 위한 물질 자본과 인적 및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소비하는 한편, 생산된 산출물의 일정 부분을 자연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환류 축적하는 상호작용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때때로 인간이 사용 가능한 자연 자원 및 사회 유산의 총량이 감소하지 않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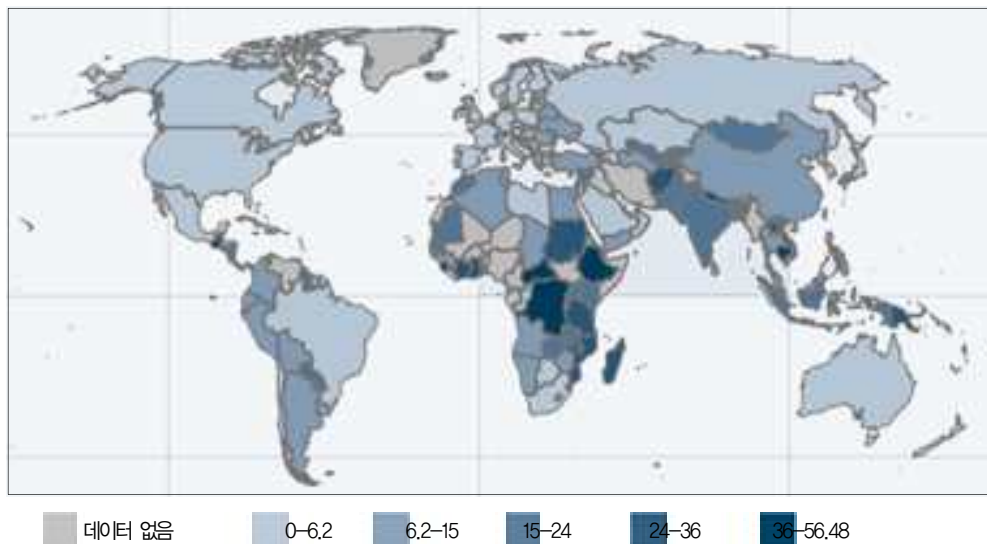
인간의 주요 경제 활동 가운데 농업은 토양, 기후, 생물 등 자연 환경의 영향이 지배적인 산업으로 지역별 농업 형태, 농작물의 작부 형태와 적지, 작기에 따른 생산성, 안정성 등은 기후 환경이 토양 및 생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점

2) 브룬틀란트 보고서에 나타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전통적인 정의는 미래세대의 필요와 현재 세대의 필요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한계 내에서의 인류 문명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의미하나, 보다 분석적인 관점에서는 특정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일인당 자연환경의 총량을 감소시키지 않는 수준의 사회경제 발전으로 정의되기도 함.

에서 다른 산업부문과 차별적 특성을 지니며,³⁾ 인간과 자연 환경의 상호작용에 관한 지속가능한 발전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져 왔다.

2013년 기준,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30억 이상의 인구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이 가운데 25억 명 이상이 그들의 생계를 농업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농업과 농업 생산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환경 인자들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논의 초기부터 주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져 왔다. 특히 전 세계 농업부문 부가가치의 75% 이상이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개도국 GDP의 30% 이상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의 구축은 기아 해소와 식량 안보와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두 번째 위치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⁴⁾

그림 6 농업부문 부가가치의 GDP 기여율 분포



자료: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FAO(2013)에서 재인용.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분석에 따르면,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농업부문의 GDP 1% 성장은 같은 수준의 여타 부문 성장의 2.5배에 해당하는 3분위 빈곤 계층의 지출증가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 기준 세계 경제의 농업부문 부가가치 성장률은 4%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체 부가가치 성장률 1%의 4배에 해당하는 실적

3)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 - 기후변화의 영향 및 적응" p. 121.

4) FAO, Statistical Year Book 2013.

으로 다른 부문의 성장에 비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회복력 증진효과가 더 크며 경제 전반에 걸친 폭넓은 발전을 선도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산업혁명이 시발된 영국과 북아일랜드의 사례는 물론 보다 최근의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에서도 농업부문의 성장이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의 발전을 선도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있으며, 실제로 농업생산 활동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개발도상국의 국내 총생산의 1/3~1/2을 차지할 만큼 국가경제 발전의 근간이 된다.

2.2. 농업부문 SDGs 세부목표 및 이행기표

기후환경과 농업 간의 상호 관계는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 2: 기아 해소와 식량 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의제, 목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목표 13: 기후 변화 대응, 목표 15 육상 생태계 보전과 관련된 세부 이행목표들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실천 의제로 정리되어 있다.

먼저 농업부문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도시 제조업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개발도상국 내의 농촌 및 농업 생산 활동이 갖는 사회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기아 해소, 식량안보와 영양개선 달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 촉진을 상위 목표로 하는 8개의 세부이행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농업부문 지속가능발전 세부이행 목표

목표 2.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와 영양개선 달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 촉진
2.1 2030년까지 기아퇴치, 유아(영아)를 포함하여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영양 있는 충분한 음식 보장 등
2.2 2030년까지 사춘기 소녀, 임산부, 수유모, 노인들에게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 근절 (발육장애 5세 미만에 대한 2025년 달성국제합의 목표 포함) 등
2.3 2030년까지 농업생산량과 소규모 생산자 소득의 2배 증가 및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관련 목표들의 달성 등
2.4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시스템 확보,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후 적응 농업 연관 목표의 시행
2.5 2020년까지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의 유전자원 다양성 유지 및 이를 활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공정한 분배 보장과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활용에 대한 국제적 합의 요구 등
2.a 국제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서의 농업 생산력 향상을 위한 수단과 정책들에 대한 선진국의 투자 증가
2.b 도하개발아젠다에 따른 세계농업시장에서 무역 제한 및 왜곡 조치의 시정과 예방
2.c 식량가격의 극단적 변동을 방지할 수 있는 식량시장의 정상 작용을 위한 비축식량 포함 시장정보 접근성 향상

자료: UN,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2015), p.13.

8개의 세부이행 목표 가운데 기아 종식과 영양개선에 관한 목표에 해당하는 세부목표 2.1과 2.2를 제외할 때, 농업 생산 활동과 직접 연관된 목표로는 세부목표 2.3, 2.4,

2.5를 들 수 있다. 세부 목표 2.3은 2030년까지 토지, 생산자원 및 투입요소, 영농지식, 금융서비스, 시장과 부가가치 기회 및 비농업 부문 일자리에 대한 안정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통해서 소규모 식량생산자, 특히 여성, 원주민, 가족농, 유목민 및 어민들의 소득과 생산성을 2배 증가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이행 지표로는 단위노동 투입 당 농업 생산량을 경작, 목축, 영림 주체별로 구분하여 불변가격(미국 달러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2.3.1)와 총 요소 생산성 지표(2.3.2)가 제시되어 있다.

세부 목표 2.4의 경우, 2030년을 목표 시한으로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시스템을 확보하는 한편, 생산성과 생산량 증가, 생태계 유지에 대한 기여, 기후변화, 극한 기상이변, 가뭄, 홍수 및 기타 재난에 대한 적응력 강화와 토지와 토양의 질 개선 관점의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와 관련된 이행지표로는 지속가능한 농업활동이 이루어지는 농지면적 비율(2.4.1), 전체 농가 가운데 관개시설을 이용하는 농가의 비율(2.4.2), 비료를 사용하는 전체 농가 가운데 생태 친화적인 비료를 사용하는 농가의 비율(2.4.3)이 검토되고 있다.

세부 목표 2.5는 2020년까지 국가,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안전하게 관리되는 다양한 종자와 작물 은행 등을 통해 종자, 재배 작물, 사육 및 관리(domesticated)되는 동물과 관련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한편,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을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공유하거나 접근할 것을 목표로 정하였다. 관련 이행 지표로 현지 이외 작물의 채취 및 부화 지표(2.5.1), 지역 특산 작물과 동물 품종 및 그 파생종에 대하여 멸종위험 정도에 따라 3가지로 나누어진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2.5.2)가 제시되어 있다.

세부 목표 8개 가운데에는 이상에 살펴본 5개 세부이행 목표의 이행을 지원하는 수단과 관련된 3개의 세부 목표(2.a, 2.b, 2.c)가 포함되어 있다. 세부 목표 2.a는 강화된 국제 협력을 통하여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 개도국의 농업생산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농촌 기반시설, 농업 연구 및 서비스 확대, 기술개발 및 작물과 가축의 유전자은행 분야의 투자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관련 지표로는 정부 지출 가운데 농업부문 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농업 지원지표(2.a.1)가 있다.

세부 목표 2.b는 도하개발아젠다에 따른 세계농업시장에서 무역 제한 및 왜곡 조치의 시정과 예방이며,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금과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갖는 모든 형태의 무역 조치들을 모든 회원국들에서 일괄적으로(parallel) 제거하는 것이 포함된다. 관련 지표에는 농산품 수출입 관세 변화율(2.b.1), 농업 수출지원금 규모(2.b.2)가 포함된다.

끝으로 세부 목표 2.c는 식량가격의 극단적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량 시장의 정상 작용에 필요한 조치들과 식량 비축량을 포함하는 시장정보에 대한 적기 접근성을 촉진하는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세부 목표 2.c의 이행지표로는 식량가격의 이상치에 기초한 지표(2.c.1)가 제시되어 있다.

2.3. 농업부문 SDGs 세부목표와 기후환경목표의 연계

농업이 기후, 토양, 생물 등 자연 환경의 지배적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농업부문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행이 기후 및 환경 연관 목표의 이행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속가능발전 목표 2가 농업과 같은 경제활동의 일부분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목표 2와 다른 목표들 사이의 연관 관계는 다른 연관 목표의 세부목표가 농업부문 세부목표를 그 일부로 포괄하는 것이거나, 반대로 농업부문 세부목표에 다른 연관 세부목표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업부문 세부목표 2.3은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재,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과 부가가치 및 비농업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정적이고 평등한 접근성 확보를 통해 여성, 원주민, 가족농, 목축민, 어민 등의 농업 생산량과 소농의 소득을 2배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경제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모두에게 제공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촉진하는 것과 관련된 목표 8에 포함된 세부목표 8.2(고부가가치와 노동집약적 분야 집중 등 다각화, 기술 업그레이드, 혁신을 통해 높은 수준의 경제 생산성 달성)을 농업부문에 적용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대양과 바다 및 해양 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목표 14의 세부 목표인 14.b(소규모 영세어업 종사자들에 해양자원 및 시장 접근 확보·제공)는 농업부문 세부목표 2.3(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재,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과 부가가치 및 비농업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정적이고 평등한 접근성 확보를 통해 여성, 원주민, 가족농, 목축민, 어민 등의 농업 생산량과 소농의 소득을 2배 증대)의 일부로 포함된 것으로 여겨진다.

국가 수준의 제도적 목표이행 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 및 이행지표 간의 상호 간 주종적 연관 관계는 각 목표 및 세부 목표별 주관 및 협조 부처의 지정과 관리에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표 2 농업부문 세부목표와 기후 환경부문 세부목표들 연관 관계

2.3.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재,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과 부가가치 및 비농업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정적이고 평등한 접근성 확보를 통해 여성, 원주민, 가족농, 목축민, 어민 등의 농업생산량과 소농의 소득 2배 증대	
연관 세부목표	우선지표
8.2 고부가가치와 노동집약적 분야 집중 등 다각화, 기술 업그레이드, 혁신을 통해 높은 수준의 경제 생산성 달성	취업자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8.5. 2030년까지 생산적인 완전 고용, 청소년장애인을 포함한 남녀 모두에게 제공되는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및 동일 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달성	직업별 여성과 남성 근로자 평균 (시간당) 임금
8.8. 노동권 보호와 이주 노동자, 특히 여성이주노동자와 불안정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 제공	도수율과 산업재해로 손해 본 시간(성별/이주 등급별)
8.b. 2020년까지 청년고용을 위한 글로벌전략의 개발과 운영, 'ILO세계고용 협약' 이행	국가 예산 및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적 보호 및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 분야 정부 총 지출예산
9.1. 저렴하고 공평한 접근성에 주안점을 두고 경제발전과 인류의 웰빙을 지원하기 위 한 지역 및 접경 인프라를 포함하는 양질의, 믿을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인프라 개발	4계절 이용 가능한 도로에서 2km 이내 거주 농촌인구 비중
9.4. 2030년까지 자원이용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청정친환경기술 및 산업공정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하도록 인프라 업그레이드 및 산업 개편	자원효율성 향상 및 친환경 기술 확대 적용토록 인프라와 산업 개편
12.2. 2030년까지 자연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지속가능한 관리 달성	물질발자국(Material Footprint)과 1인당 MF
14.b. 소규모 영세어업 종사자들에 해양자원 및 시장 접근 확보제공	소규모 전통어업의 해양자원 접근
15.c. 보호종에 대한 밀렵, 밀거래를 방지하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소득 기회를 찾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글로벌 자원 증진	적색목록 지표
2.4. 2030년까지 생산성과 생산을 증대하고 생태계 유지를 도우며 기후변화, 극심한 기상변화와 홍수, 가뭄 등 기타 재해에 대한 적응 역량을 강화하여 점진적으로 토지와 토양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식량생산 시스템 보장과 회복력 있는 농업활동 이행	
12.8.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개발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식에 대한 관련 정보와 인식을 갖도록 보장	공식교육과정에 지속가능발전과 생활양식 주제들을 포함하는 국가들의 수
13.1. 모든 국가에서 기후관련 위험과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및 적응력 강화	기후변화 적응 능력이 진전된 국가의 수
13.2. 국가 정책, 전략, 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포함	저탄소 사회, 기후복원력, 재난 감소 등을 포함하는 국가적응계획을 수립한 국가 수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대응의 인지도 향상 및 시민과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대응을 초·중·고등 교육과정에 포함시킨 국가 수
13.b. 최빈국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계획과 관리를 위한 역량강화 메커니즘 촉진	역량강화 지원을 받은 최빈국 수
14.2. 2020년까지 회복력 강화를 통해 심각한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해양 및 해안생태계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보호 및 건강하고 생산적인 바다를 만들기 위한 복구 조치	해양, 연안 보호구역 비중
15.1. 2020년까지 육상 및 담수 생태계 시스템, 특히 숲, 습지, 산림 및 건조지역에서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 조약과 법규 하에 보존, 복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	전체 숲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를 받는 숲 면적 비율

(계속)

연관 세부목표	우선지표
2.5. 2020년까지 국가·지역·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다양화된 식물 및 종자은행을 통한 종자, 농작물, 가축 및 이와 관련 있는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와 유전적 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 지식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에 대한 공정한 분배 및 접근성 보장	
14.4. 2020년까지 효과적인 조업 규제 및 남획, 불법·무허가·규정 외 조업, 파괴적 어업관행 근절, 적어도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최대한 지속가능한 수확량을 유지하는 수준까지 최단시간 내 어류자원 복원을 위한 과학적인 관리계획 시행	지속가능한 어획량
14.a. 해양 건전성을 높이고, 해양 생물다양성의 개발도상국 특히, SIDS와 최빈국 발전기여도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지식 배양, 연구능력 개발 및 『정부간 해양학위원회 해양기술 이전에 관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해양기술 이전	백만 명당 R&D 연구인력 비중
14.c. 『UN 해양법협약』에 투영되어 있는 해양과 그 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정한 체계를 포함한 국제법의 전면적인 이행	국제결제은행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국제회계기준, 국제통화기금,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세계 무역기구 국제 규범과 SDGs 관계 및 이행정도에 관한 연례 보고서
15.6. 유전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보장	
15.b. 지속가능한 숲 관리에 재정 지원 등 각종 유의미한 자원을 동원하고 개발도상국이 산림 재녹화와 보존 등 선진적 관리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공적개발원조와 GNI의 순 민간보조금 비율
15.c. 보호종에 대한 밀렵, 밀거래를 방지하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소득 기회를 찾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글로벌 자원 증진	적색목록 지표

자료 :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2015,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2015, KOICA), Indicators and a Monitoring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Launching a data revolution for the SDGs, A report by the Leadership Council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2015, SDSN)을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3. 농업·환경 SDGs의 연계 이행 전략 및 방안

국가 수준에서 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천 과정은 17개 목표(goal)와 169개 세부목표(target) 가운데 개별 국가의 사회경제 및 환경적 여건에 부합하는 국가별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도출하고, 이들 목표의 이행과 관련된 주관 및 협조 정부 부처를 지정하여, 2030년까지의 17개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각 목표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해당 부처가 이미 수립·시행 중인 장기, 중기 및 연차 계획 내에 목표별 이행 계획을 반영하는 것과 같은 제도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집합의 구성과 그 실천을 위한 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목표별 중장기 및 연차 계획의 수립 과정에는 해당 목표의 이행과정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수준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협의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 기존 5년 단위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혹은 유사 계획의 수립 과정에 마련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제도가 원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부문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기후 및 환경 관련 국가 계획과의 연계 이행전략에 있어서는 생태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시스템 보장과 회복력 있는 농업활동 이행과 관련된 세부 목표 2.4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4-1-3. '기후변화 적응형 산업체제 구축에 포함된 '기후친화형 농업 생산체제로 전환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제1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에 포함된 농업, 산림, 물 관리, 생태계의 부문별 세부 적응대책의 경우도 농업부문 지속가능발전 세부 목표 2.4와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다.

개별 부처 소관의 환경관련 중장기 계획들의 경우에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환경보전종합계획에 포함된 농업 및 농촌 인프라 개발과 관련된 실천 목표들이 농업부문 지속가능발전 세부 목표 2.4와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으며,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의 하위 전략 4. '생태계서비스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생물자원과 전통지식 관련 연구개발 확대'는 농업부문 지속가능발전 세부 목표 2.5에 정한 생물종 다양성 유지와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 지식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에 대한 공정한 분배 및 접근성 보장과 관련된 부처별 이행 방안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30년까지 인류 문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의제로 제시된 17개 목표(goal)와 169개 세부목표(target) 및 검토가 진행 중인 224개 이행지표를 5대 행동 영역으로 제시된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의 관점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로 재구성하고, 관련 이행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지난 40여년에 걸친 지난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인류 문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사회경제 발전 및 환경 보호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현 세대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농업은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 일어난 가장 오래된 원시산업으로 1만년 이상의 장구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30억 인구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1차적 물적 토대를 제공하면서 25억 명 이상의 생계를 책임지는 전략 산업이다. 특히 전 세계 농업부문 부가가치의 75% 이상이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개도국 GDP의 30% 이상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농업부문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기후 환경 연관 목표들과 갖는 상호연관 관계를 올바르게 규명하고, 그 이행 방안을 국가 계획과 부문별 중장기 계획의 틀 내에 포함시키는 것은 빈곤 해소를 가장

큰 지구적 도전과제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결 요건으로 강조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의제 2030 이행 전략의 근간이 된다.

관련 목표 및 세부 목표 이행을 주관할 정부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하에 각 목표 상호 간의 시너지 혹은 상충 관계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세부 이행 전략과 실천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한국수출입은행. 2013. “Post-2015 고위급패널(HLP)보고서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슈페이퍼 Vol2. No3」. 한국수출입은행.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014.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 - 기후변화의 영향 및 적응」. 환경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Post-2015 SDGs 대응 녹색경제 이행전략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KOICA. 2015.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KOICA.
- FAO. 2013. *Statistical Year Book*. FAO.
- SDSN. 2015. *Indicators and a Monitoring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Launching a data revolution for the SDGs*. Leadership Council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UN. 2013. *General Assembly Open 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rogramme of Work 2013-2014*. 28 May 2013. UN.
- UN.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 UN/DESA. 2015. *Towards integration at las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s a network of targets*. UN.
- World Bank. 2015.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Bank.

참고사이트

-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http://sdsnk.or.kr/>)
- United Nations Foundation (<http://www.unfoundation.org/assets/pdf/>)
- European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 (<http://www.sd-network.eu/>)